

# 향토기업 10곳 중 6곳 “올림픽이 도움 안 된다”

／ 도내서 업력 10년 이상 된 130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 63.8% 답변 ... 수혜 업종 건설업도 54.7% ‘부정적’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 정부 차원 우대 정책 절실

도내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회사 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이 나와야 하고 동계올림픽과 중소기업과의 연계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결과는 강원일보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도내에서 업력 10년 이상 된 향토기업 130개를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향토기업들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3.8%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나머지 36.2%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생산제품이 올림픽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응답이 61.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기업 중심으로 납품될 가능성이 많아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 16.7%로 그 뒤를 이었다. ‘올림픽 관련 공사 현장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13.

## ■ 평창동계올림픽이 회사에 도움 되지 않는 이유 (%)



1%)이라는 응답과 ‘지역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부 정책이 없다(6%)’는 의견도 있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식품업 쪽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각각 74%, 68%로 높게 나왔고 동계올림픽 공사의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건설업에서도 절반 이상인 54.7%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향토기업들은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려면 사전에 어떤 점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54.6%가 ‘지역 중소기업 우대 정책 마련’을 꼽았고, 23.8%는 ‘공무원들의 지역 기업에 대한 관심 증가’를 선택했다.

김석중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지역 중소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려면 이를 연계·지원하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마련돼야 하고 향토산업 클러스터 설치 등과 같은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 ◇정동기 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19일 오후 6시 강릉시 교동의 한 음식점에서 강릉지역 회원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

담회를 개최.



◇정동기 대한건설협회도회장은 19일 오후 6시 강릉시 교동의 한 음식점

에서 강릉지역 회원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다.